

800조 반도체 프로젝트 성공 열쇠는 '인재 정착'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권 800조원 규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사람'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반도체 핵심 인력과 가족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국 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갖춘 정주 여건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5일 정부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호남권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생산시설과 연구개발(R&D),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집적화해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 구조를 분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지역에서는 대규모 투자에 따른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

특목고·자사고·반도체고 등 교육 인프라 확충 목소리 수도권 연구원 "자녀 교육환경이 지방 근무 결정 좌우" "정주 여건 갖추지 못하면 성공 아닌 실패사례 될수도"

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산업계에서는 생산시설 조성만으로는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우수 인력 확보에 달려 있으며, 인재가 정착하지 못하면 기업 투자도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수도권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하는 연구원과 엔지니어들은 지방 근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녀 교육환경과 가족의 정주 여건을 꼽는다.

경기도 한 반도체기업 연구원은 "지방 근무를 제안받더라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아이들이 다닐 학교와 주변 환경"이라며 "학원가 등 교육 환경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면 지방 근무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반도체기업 엔지니어는 "배우자의 직장도 자녀 교육 때문에 가족은 수도권에 남고 혼자 지방에서 생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기업도 장기 근속할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호남권도 산업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교육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히 학교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우수 학생과 기업 임직원 자녀들이 찾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이 가능한 과학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반도체 특성화고 등을 전략적으로 확충하고, 지역 대학과 기업이 연계한 계약학과와 맞춤형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직접 양성하는 동시에 외부 우수 인재도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결국 사람이 경쟁력인 산업"이라며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원과 기술인력이 자녀 교육을 걱정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경쟁력 있는 특목고와 자사고, 반도체 특성화고 등 다양한 교육 선택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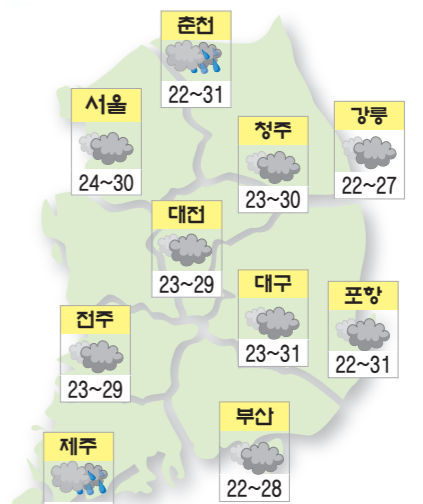
교육환경뿐 아니라 의료, 문화, 교통, 주거 등 정주 인프라를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 대부분이 산업단지와 교육·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조성하며 인재를 끌어모은 만큼 호남 역시 도시 경쟁력을 함께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800조원 투자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과 인재가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지자체, 교육계가 지금부터 교육과 정주 여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이번 프로젝트가 지역 균형발전의 성공사례가 아니라 또 하나의 실패사례로 남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김민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맑음	05:24	달림	23:23
맑음	19:50	달림	11:04



광주	23~30
목포	23~28
여수	22~27
순천	23~28
구례	23~28
광주	23~28
매남	23~28
신도	22~28
흑산도	22~26
진남	22~28
고흥	22~28
진도	22~27

목포	미물(고)	06:03 / 18:19
	샘물(저)	11:23 / 23:30
여수	미물(고)	00:37 / 12:59
	샘물(저)	06:51 / 18:50

전남광주 6월 평균기온 22.6도 '역대 3위'

강수일수는 평년 10.2일보다 적은 7.3일 기록

지난 6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평균기온은 22.6도로 역대 3위를 기록했다.

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6월 전남광주의 평균기온은 22.6도로 평년(21.5도)에 비해 1.1도 높았다.

1~4일에는 제6호 태풍 '장미'가 일본 남쪽 해상으로 북상하면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돼 기온이 크게 상승했다. 13일부터 다시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 기온이 올라가는 주요 원인이 됐다.

특히 17~20일에는 최저기온이 평년 대비 크게 올라 광주(23도), 여수(22.4도)에서는 6월 중순 일최저기온이 2~3위를 경신했다.

6월 전남광주 폭염일수는 0.4일로 평년(0.1일)보다 많았다.

2024년과 지난해는 6월 폭염일수가 각

각 1.1일, 0.7일로 역대 1, 3위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적게 발생했다. 열대야도 발생하지 않았다.

6월 광주·전남 강수량은 141.8mm로 평년(177.0mm) 대비 78.1% 수준으로, 지난해(171.4mm)보다 적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진 탓에 강수일수는 평년(10.2일) 대비 적은 7.3일로 분석됐다.

장미는 30일에 시작돼 평년보다 7일 늦었다. 올해 장마철 시작이 늦어진 원인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지연을 꼽았다. 정현숙 광주지방기상청장은 "올해는 폭염이 지난해보다 적었고 장마철도 늦어졌다"며 "남은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 장마,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서구 행복학교 지난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동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 열린 '함께서 구 행복학교 3기' 졸업식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집을 짓고 놀이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열린 졸업식에서는 참여 가족들이 교육 참여 경험과 성장 사례를 발표하며 달린 일상을 공유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완도 저온창고 화재 사고 원인 '총체적 부실'

우레탄 화재 대응·지휘능력 등 미흡...안전원칙도 미준수

지난 4일 전남광주특별시 완도 저온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고는 우레탄 폼 건축물의 위험성이 현장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고, 현장 지휘와 대응 전술, 안전관리까지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은 현장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오는 2030년까지 인력 5000명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지난 3일 완도 저온창고 화재 순직사고와 관련한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창고는 창문이나 개구부가 없는 밀폐 구조였다. 우레탄 폼이 열분해되며

발생한 가연성 가스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한 채 천장에 축적됐고, 이후 불길이 강판 뒤편을 따라 확산되면서 천장부 가연성 가스에 착화하는 '화재가스발화(FGI)'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단은 판단했다.

당시 소방은 내부 진입을 중심으로 화재 진압에 나섰다. 천장 구석에서 화염이 확인되자 철수 명령이 내려졌지만, 대원 7명 가운데 5명만 빠져나왔고 완도구조대 소속 고 박승원 소방위와 해남소방서 북평지역대 소속 고 노태영 소방사는 끝내 현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합동조사단은 위험정보 공유부터 현장

지휘, 대응 전술, 장비 운영에 이르기까지 대응체계 전반의 허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조사 결과 우레탄 폼 건축물의 위험성과 건축물 정보가 출동대에 전달되지 않았고, 지휘관 이양과 상황평가, 전략·전술 결정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우레탄 폼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작전절차(SOP)가 미흡했고, 사고 발생 시 구조대원을 구조하는 신속동료구조팀(RIT) 운영 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열화상카메라 등 안전장비 관리가 부실했던 데다 펌프차 진입 인력이 부족해 '2인 1조' 안전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 역시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임영진 기자 looks@

소각 중 잠들어 주택 반소

마넨필 ○...주거지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잠든 80대 여성이 화상을 입고 주택이 반소돼.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32분 무안군 문탄면 한 주택에서 '타다닥하는 소리가 들리고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소방장비 12대, 소방대원 30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19분 만인 3일 오전 0시1분 불길을 잡았다.

당시 방에서 잠을 자던 80대 여성은 대피과정에서 1도 화상을 입었다.

이 불로 주택이 반소됐고, 에어컨과 주방기구 등이 타거나 그을리면서 소방 추산 559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소방당국은 쓰레기 소각 후 안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가 주변으로 옮겨붙어 확산된 것으로 추정.

소방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허용되지 않은 곳에서 휴면과는·발동류, 쓰레기 소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

무원=이훈기 기자 leek2123@

세계 비닐봉지 없는 날

여전히 '비닐 일상'...자원순환 노력 '공염불'

시장·카페 등 상시 사용·장바구니 이용 전무
"편리함 익숙...환경오염 줄이기 실천 동참을"

"아무 생각 없이 비닐봉지를 주고받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장바구니 사용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비닐봉지 없는 날(International Plastic Bag Free Day)'을 맞은 지난 3일 전남광주특별시 남구 봉선시장,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의 기념일이었지만 시장 곳곳에서는 여전히 비닐봉지가 일상처럼 사용되고

있었다. '세계 비닐봉지 없는 날'은 지난 2008년 스페인 환경단체 '가이아(GAIA)'의 제안으로 시작된 국제 캠페인이다.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고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7월 3일 운영된다.

이날 시장에는 장을 보러는 시민들로 붐볐지만 대부분은 채소와 반찬 등을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있었다. 상인들도 별

다른 망설임 없이 비닐봉지를 건넸다.

한 채소가게에서는 손님이 브로콜리와 피망 등을 고르자 직원이 흰색 비닐봉지에 담아 건넸고, 다른 상점에서도 품목별로 개별 포장된 비닐봉지가 당연한 듯 사용됐다. 장바구니를 가져온 시민도 여러 장의 비닐봉지를 함께 사용하는 모습이 었다.

시민들 상당수는 '세계 비닐봉지 없는 날' 자체를 알지 못했다.

김모씨(46·여)는 "비닐봉지 없는 날이 있는 줄 처음 알았다"며 "장을 볼 때 장바구니를 가져가더라도 나물이나 생



'세계 비닐봉지 없는 날'인 3일 광주 남구 봉선시장에서 장을 보던 시민들이 비닐봉투에 물건을 담고 있다.

선, 반찬은 위생 때문에 비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인들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 반찬가게 운영자는 "텀블러처럼 대체할 수 있는 품목도 있지만 두부나 국물 있는 반찬을 담을 용기는 사실상 마땅치

않다"며 "손님이 직접 용기를 가져오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말했다.

카페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광주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는 포장 음료를 비닐 소재 캐리어에 담아 고객에게 전달하고 있었다.

비닐 사용을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의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에코백을 기증받아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빌려주고 다시 반납받는 '부메랑 에코백' 사업을 올해 처음 운영하고 있다.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달 말부터 10월까지 대인시장에서 비닐봉지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학교와 기관·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에코백 250여개를 시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석유 기반 플라스틱인 폴리에틸렌 비닐 봉지는 완전히 분해되는 데 수백 년이 걸리는 만큼 장바구니와 다화용기를 사용하는 작은 실천이 환경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글=서진=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